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5.11.26.(수) 석간	배포	2025.11.25.(화)		
담당부서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책임자	국 장	김재갑	(02-3145-7270)
		담당자	팀 장	이동재	(02-3145-7260)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I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 개요

-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대상)**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기준 작성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는 소속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 **(평가항목)** 보험설계사의 업무 기준·절차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불완전판매율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부분을 각각 평가합니다.
 - **(평가결과)** 통제환경 25점, 통제활동 40점, 통제효과 35점 및 가점·감점 ±10점을 합산한 100분위 점수로 1~5등급을 분류합니다.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상기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한정하여 대리점의 자체 점검에 기반하여 그 점검결과 및 증빙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평가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제도(RAAS)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검사과정을 통해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와는 다른 제도이며, 본 평가결과에서 말하는 평가등급은 대리점 대상 평가등급으로, 금융회사 대상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경영실태평가 등급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는 대형 GA의 직전 연도('21~'23년도)의 내부통제 실태를 시범 평가(pilot test)하였고,
- 시범 평가를 통해 평가 방식 등을 지속 보완하여 금년부터 대형 GA의 전년도('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II 평가결과

1. 종합 평가결과

- 대형 GA 75개사의 '24년도 기준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3등급(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그간의 시범평가 이후 1~2등급 해당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되었습니다.

〈 내부통제 실태 평가등급 분포 〉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합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7	9.3	22	29.3	24	32.0	9	12.0	13	17.3	75	100.0

* 평가대상 연도별 1~2등급 추이(개수): '21년도 17개 → '22년도 18개 → '23년도 23개

※ 붙임: 1~2등급 대형 GA 명단

2. 규모별 평가결과

-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52.0%로 1,000명 이상 대형 GA의 해당 비중(30.0% 이하)보다 높게 나타나,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설계사 3,000명↑)** 총 20개사 중 1~2등급 16개사(80.0%), 3등급 4개사(20.0%)이고, 4~5등급은 없습니다.
- **(설계사 1,000명↑~3,000명↓)** 총 30개사 중 1~2등급 11개사(36.7%), 3등급 10개사(33.3%), 4~5등급 9개사(30.0%)입니다.
- **(설계사 500명↑~1,000명↓)** 총 25개사 중 1~2등급 2개사(8.0%), 3등급 10개사(40.0%), 4~5등급 13개사(52.0%)입니다.

규모별 내부통제 평가등급 현황

(단위 : 개, %)

규모별 구분	1~2등급(우수·양호)			3등급 (보통)	4~5등급(취약·위험)			계
		1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3,000명 이상	16 (80.0)	4 (20.0)	12 (60.0)	4 (20.0)	0 (0.0)	0 (0.0)	0 (0.0)	20 (100.0)
3,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11 (36.7)	3 (10.0)	8 (26.7)	10 (33.3)	9 (30.0)	6 (20.0)	3 (10.0)	30 (100.0)
1,000명 미만 ~ 500명 이상	2 (8.0)	0 (0.0)	2 (8.0)	10 (40.0%)	13 (52.0)	3 (12.0)	10 (40.0)	25 (100.0)
합계	29 (38.6)	7 (9.3)	22 (29.3)	24 (32.0%)	22 (29.3)	9 (12.0)	13 (17.3)	75 (100.0)

3. 지배구조 유형별 평가결과

- 대형 GA 지배구조 유형상 지사형¹⁾ 대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²⁾, 오너형³⁾(각 20.0%, 13.6%)보다 높게 나타나,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 1) 지사(union)형: 지사지점들이 연합하여 조직되어 있고 대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법인보험대리점
- 2)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보험회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보험대리점
- 3) 오너(owner)형: 지점이 예산, 조직 등 경영에 관하여 본점의 통제를 받는 법인보험대리점

- **(지사형)** 지사형은 평가대상 75개사 중 34개사(45.3%)이며, 1~2등급 12개사(35.3%), 3등급 6개사(17.6%), 4~5등급 16개사(47.1%)입니다.
- **(자회사형)** 자회사형은 평가대상 75개사 중 15개사(20.0%)이며, 1~2등급 6개사(40.0%), 3등급 6개사(40.0%), 4~5등급 3개사(20.0%)입니다.

- **(오너형)** 오너형은 평가대상 75개사 중 22개사(29.3%)이며, 1~2등급 10개사(45.5%), 3등급 9개사(40.9%), 4~5등급 3개사(13.6%)입니다.

지배구조 구분별 내부통제 평가등급 현황

(단위 : 개, %)

지배구조별 구분	1~2등급(우수·양호)			3등급 (보통)	4~5등급(취약·위험)			계
	1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지사형	12 (35.3)	2 (5.9)	10 (29.4)	6 (17.6)	16 (47.1)	4 (11.8)	12 (35.3)	34 (100.0)
자회사형	6 (40.0)	1 (6.7)	5 (33.3)	6 (40.0)	3 (20.0)	3 (20.0)	0 (0.0)	15 (100.0)
오너형	10 (45.5)	4 (18.2)	6 (27.3)	9 (40.9)	3 (13.6)	2 (9.1)	1 (4.5)	22 (100.0)
기타(홈쇼핑형)	1 (25.0)	0 (0.0)	1 (25.0)	3 (75.0)	0 (0.0)	0 (0.0)	0 (0.0)	4 (100.0)
합계	29 (38.6)	7 (9.3)	22 (29.3)	24 (32.0)	22 (29.3)	9 (12.0)	13 (17.3)	75 (100.0)

4. 부문별 평가결과

- 내부통제 실태 평가 부문 중 통제환경,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되어,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제환경)**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처리 절차 마련은 1~2등급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 **(통제효과)** 소비자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율,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었으나, 금융감독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입니다.
- **(통제활동)**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은 2등급, 보험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인 등의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입니다.

주요 평가항목별 평균 평가등급 현황

항목별 등급	통제환경(3등급)	통제활동(4등급)	통제효과(3등급)
1등급	민원처리절차 마련	-	-
2등급	업무 기준·절차 마련 준법감시 조직 구축 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	GA의 보험설계사 제재
3등급	-	보험설계사 교육 보험설계사 위촉심사 소비자보호 활동	불완전판매율 13~61회차 유지율
4등급	-	빈발 위규행위 점검 공시의무 이행 점검	-
5등급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준법감시인 등의 준법감시 활동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

Ⅲ 향후 계획

- ① **(검사대상 선정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본 평가결과는 '26년도 검사대상 GA 선정시 적극 참고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평가결과는 대형 GA에 개별 통보하여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책임감 있게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 * 평가결과가 양호(1~2등급)한 대형 GA의 경우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빈발 위규 행위 점검, 준법감시 활동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있는 만큼, 취약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② **(평가 지속)** 평가를 계속하여 실시함으로써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 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대형 GA의 판매비중 확대에 걸맞게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 그간의 시범 평가를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한 만큼 도입 초기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향후 평가를 점차 고도화함으로써 대형 GA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IT 보안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빈도 등 준법감시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③ **(제재운영 방향)** 본 평가를 통해 대형 GA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에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을 게을리하여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이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선례가 있는 등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 GA의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수준을 양정할 것입니다.
- 또한, 기존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부과시 병과될 수 있는 업무정지 등 신분제재를 감경해왔으나, 반복적 위반행위(과태료 2회 이상 부과시)의 경우에는 신분제재를 감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형 GA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대형 GA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대형 GA가 앞으로도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독려하고자 이번 평가부터 1~2등급(우수·양호)로 평가된 대형 GA 명단을 대외 제공합니다.
- 다만, 본 평가결과는 감독 정책상 목적으로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금융소비자 대상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GA명	규모 (‘24년말 설계사수)	연번	GA명	규모 (‘24년말 설계사수)
1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25,144	16	(주)에즈금융서비스	3,140
2	인카금융서비스(주)	16,715	17	주식회사 어센틱금융그룹	2,423
3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16,236	18	토스인슈어런스 주식회사	2,228
4	(주)글로벌금융판매	12,892	19	(주)현대홈쇼핑	2,190
5	프라임에셋(주)	8,673	20	더블유에셋(주)	2,142
6	케이지에이에셋(주)	8,588	21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1,989
7	(주)엠금융서비스	5,800	22	주식회사 지금용코리아	1,985
8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5,639	23	(주)사랑모아금융서비스	1,840
9	굿리치주식회사	5,451	24	(주)스카이블루에셋	1,795
10	피플라이프(주)	4,332	25	에이아이에이프리미어파트너스 주식회사	1,621
11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4,048	26	에이치케이금융파트너스 보험대리점	1,378
12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3,854	27	아이에프에이(주)	1,136
13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	3,555	28	더좋은보험금융(주)	632
14	(주)영진에셋	3,418	29	키움에셋플래너주식회사	534
15	주식회사 메타리치	3,208			

※ 상기 연번은 대형 GA 규모(설계사 인원수) 순서이고, 평가결과 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